

7/26(월) 다니엘 묵상 44

다니엘 11: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12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여기서 10장은 구조적으로 서론에 해당하고 11-12장은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들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천상의 대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단 10:20절(“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대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가브리엘로 추정되는 한 천사의 앞 길을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십일일 동안이나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 주므로”).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를 사탄이 주도하는 악한 영의 존재로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군주는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10:20절에도 보면 또 다른 나라에 속하는 ‘헬라의 군주’가 등장합니다. 이는 ‘바사 군주’에 이어 ‘헬라의 군주’를 언급함으로써 두 가지 사실을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단 11-12장에서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관한 예언이 이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바사 군주’와 ‘헬라의 군주’에 해당하는 ‘군주’는 본래 ‘국가의 원수’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같은 군주들은 페르시아의 군주인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1-12장은 역사의 군주들과 세상 권력을 통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바사와 헬라의 군주들

단 11장 1절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천사 가브리엘의 말로 시작합니다(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일은 유다의 원수인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 멸망 당한 일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단 5:30-31,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때에 다리오는 욕심이 세였더라.”). 바벨론이 멸망당한 것은 천사 가브리엘의 말대로 메대의 다리오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유다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사 46:11-13,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메대의 다리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그들이 뛰어난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잠시 쓰임 받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도 만약 죄를 짓고 교만하게 되면 바벨론의 최후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2절부터 가브리엘은 페르시아의 세 명의 왕들과 함께 네번째 왕이 심히 부강할 것을 예언합니다. 학자들은 이 세 명의 왕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네번째 왕에 대해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와

세력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했던 케르케스 1세(486-465 BC)로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는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어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비를 베푼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대로 처음에는 헬라제국의 땅까지 침공하지만 결국 주전 480년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에 패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절에 등장하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추정합니다(3절, "장차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짧은 시간(약 10년) 안에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대로 ' 그가 강성할 때에' 즉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그의 나라인 그리스 헬라 제국은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고 네 명의 신하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역사에 따르면, 알렉산더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암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바울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사탄은 악한 영을 동원해서 이 세상의 군주들과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보이지 않는 천상과 보이는 세상의 참된 주권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분은 바로 하나님과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은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 군주의 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것도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최근 조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공식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내림에 따라 탈레반의 재지배와 더불어 내전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미군의 계속된 외교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이 잘 연합해서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잘 이루고 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예배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케냐의 최인호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